

학부제 하에서의 전공과 번역지도

안 임 수
(관동대학교)

I.

번역이라고 하면 전문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번역에 대하여 보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그렇지만 영어를 외국어¹⁾로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보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영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활동에 익숙해 있다고 말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원문을 이해하려 할 때, 그리고 무역이나 대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용장 작성을 비롯한 모든 국제 업무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된 서류를 풀이하

여 답신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이미 번역과정을 거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어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경우보다는 원문을 국어로 바꾸어 생각한 후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의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영어를 배울 때

-
- 1) 전세계적인 컴퓨터 이용과 세계화의 결과로 영어는 이제 공용어가 된 지 오래이다. 제주도나 같은 지역에서는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도 싱가포르나 필리핀처럼 영어를 공용어로 하게 될 지도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영어는 여전히 외국어임에 틀림없다.

부터 익숙해진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에서 문학과목, 특히 소설과목을 가르친다는 것은 절반쯤은 번역 연습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해도 무리는 없겠다. 더구나 학부제 실시 이후 학생들의 수강 요구가 다양해지고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새로운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번역지도는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기 적절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영미소설 과목의 경우 인물 분석, 구조 분석, 사회적 배경에 대한 고찰, 비유와 상징, 관점에 대한 분석 등 소설 본연의 분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 내용의 의미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문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물과 구성, 배경의 고찰이 바르게 이루어 질 수 없고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말로 완전한 문장형태로 옮기는 의미에서의 번역이 아니고 내용 파악의 과정으로서의 번역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의 현실로 보아 고등학교 때까지의 영어교육이 문법과 독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단 영어 문장을 보면 일단 해석부터 하려는 것이 학생들의 경향이기에 때문에 번역위주의 소설 강의를 시도한다는 것은 그리 무리가 없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한 학기동안 번역위주의 수업을 진행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작품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본문 자체의 이해에 충실할 수 있는 번역 위주의 수업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학부제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은 번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접근한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연구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장 사례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닐 뿐임을 밝힌다.

II.

본 연구는 2002년 1학기 동안 실시되었으며 연구의 대상은 학부제 실시 중인 K대학 3학년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들로 하였다. 부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 까지를 대상으로 한 까닭에 학생들의 기존강좌 수강 배경이 다르고 앞으로의 취업전망도 다르다는 가정 위에서 전공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방식 보

다는 교양과목의 강의처럼 일반적인 방법이 되도록 하였다.

번역 연습 대상 작품은 비교적 평이한 내용이라고 평가되는 핏제럴드의 단편을 선정하였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번역 연습과 함께 미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충실하게 반영된 작품위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미국의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그린 작품과 미국 경제의 전성기를 반영한 작품, 그리고 공황으로 넘어가던 시기를 반영한 작품 등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작가의 오후」 (“Afternoon of an Author”):

최고의 인기작가였던 핏제럴드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즈음의 이야기이다. 창작력의 쇠퇴기에 있는 왕년의 인기작가가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더라도 늘 작품의 소재를 찾으려 애를 쓰는 안쓰러운 모습이 작가의 어느 날 오후를 소재로 담담하게 펼쳐진 작품이다. 이미 다 사그러져서 더 이상 살릴 수 없는 불씨를 바라보는 심정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도록 권유하였다.

「수영하는 사람들」 (“The Swimmers”):

부인 슈페트는 프랑스인이고 남편 헨리는 미국인이다. 부인의 권유에 못이겨 파리에 근무하고 있는 어음발행인 헨리는 부인의 불륜의 순간을 목격한다. 자연적으로 이들은 파경을 맞게 되지만 슈페트는 상대 남자 위즈와 함께 남편에게 자신이 법적으로 유리하니 아이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양육권 문제를 놓고 셋이서 열띤 언쟁에 휩싸이던 중 헨리는 기지를 발휘하여 목숨을 걸고 등대까지 헤엄쳐 가서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반대급부로 양육권을 찾는다. 슈페트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유럽식의 사고방식, 즉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유럽식 사고방식과 가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적인 현실적 상황인식이 충돌하는 것을 잘 그려낸 작품이다. 슈페트와 헨리와의 대화가 호의적이지 못하며 특히 슈페트가 미국인을 허세부리는 사람들로 무시하는 대화내용을 잘 파악하도록 권유하였다.

「마지막 미인」 (“The Last of the Belles”):

인위적으로 창조한 남부 도시 탈튼을 배경으로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강조

한 작품이다. 앤디는 탈튼에 배치되어온 신병으로 어느날 하버드에 다닐 때 알던 전출을 앞둔 놀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거기서 가장 멋진 여자 아일리를 알게 된다. 앤디는 전형적인 남부 미인 아일리를 보고 반하지만 아일리에게는 이미 구혼자가 많다. 그녀를 지켜주는 기사노릇에 만족하던 앤디는 프랑스로의 파병을 앞두고 전쟁이 끝나 하버드 법대에 복학하여 졸업하고 관리직에 진출한다. 탈튼을 떠난 뒤 6년 후 다시 찾은 탈튼에서 예전 모습대로의 아일리를 다시 만나 구혼하지만 북부사람과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거절한다. 다음 달에 같은 남부 출신 남자에게 결혼한다고 말하는 아일리와 함께 예전 부대에 가 보고 과거는 흘러갔음을 느낀다. 남부인의 우월감이 가득한 아일리와 이를 받아들이는 앤디의 플라토닉 러브가 아름답다. 남북전쟁이후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기후, 지리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너무나 다르다. 남과 북의 역사적 차이, 남북전쟁 등을 연결시면서 작품을 이해할 것을 권유하였다.

「겨울의 꿈」 (“Winter Dreams”):

성실과 신용으로 자수성가한 텍스터는 20대에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세탁소 사업에 뛰어들어 전도 유망한 사업가로 성장한다. 골프장 캐디로 일할 때의 고객의 딸 줄리를 사귀게 되어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만 줄리는 여러 남자들의 선망의 시선을 동시에 즐기는 전형적인 개방된 여성이다. 줄리가 부인으로 적합치 않다는 생각에 이렌느와 약혼하기로 하자 줄리가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두 여자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 텍스터는 피난처로 군임대를 택한다. 그러나 7년 후 월 가에서 금융인으로 성공한 텍스터는 우연히 사무실에 들른 고향 친구에게서 줄리의 소식을 듣고 그가 진정 사랑했던 사람은 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지만 때늦은 후회일 뿐이다. 그가 절망한 사실은 줄리가 술에 절어 폭행을 일삼는 그녀의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거기다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찾은 바빌론」 (“Babylon Revisited”):

미래에 대비하지 못한 채 파리에서 백만장자처럼 청춘을 즐기던 찰리는 7년 후 술과 도박을 끊고 딸과 함께 성실하게 살려는 각오로 처형 마리온에게

온다. 그러나 마리온은 형부의 절제없는 생활로 언니가 죽은 것을 원망하며 의문을 제기한다. 며칠동안 머물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찰리는 처제 마리온의 마음을 움직여 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연히 예전의 단골 바에 들린 찰리는 함께 어울리던 던컨과 로레인을 만나 반갑게 과거를 추억하지만 이것이 화근이 된다. 찰리가 미처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마리온의 집에 들이닥친 던컨과 로레인은 예전의 절제없던 그 모습으로 만취한 채 마리온의 집을 흔들어놓고 간다. 독신인 누나까지 불러 딸과의 새로운 생활을 설계하려던 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며 딸의 원망스러운 눈길을 피할 수 없다. 이 작품은 20년대의 풍요에 젖어서 곧 닥칠 공황에 대비하지 못했던 미국인의 모습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린 작품이다. 딸의 양육권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온 7년의 세월이 허사로 돌아가는 찰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자세를 가질 것을 권유하였다.

III.

번역 연습을 시작하면서 “모든 번역은 내게 있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²⁾라는 흄볼트의 말을 소개함으로써 번역이라는 거창하게 들리는 말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이려고 하였다. 일반적인 번역에 대한 정의는 브리태니커 사전에 아주 간단, 명료하게 되어있다. 즉 “번역은 하나의 언어, 또는 기호의 set 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른 언어, 또는 다른 set of symbols 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처음 시도에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배경설명 없이 작가소개와 단편 “Afternoon of an Author”의 요약에 이어서 각자 번역해 오도록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 내용의 이해라는 목적에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지만 본문 중에 나오는 고유명사나 지명 등은 아예 원문 그대로 둔 경우가 많았으며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적당히 풀이하거나 원문 그대로 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번역지도(guided translation exercise)에 있어서 안내의 필요성을 인식

2) 김효중, 『번역학』, 민음사, 2000, p. 18에서 재인용한 것임.

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번역에 대한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이지만 최선의 안내가 되도록 하였다. 먼저 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배경, 작가의 의도에 대한 설명을 주었다. 아울러 본문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각 작품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과 속어적 용법, 고유명사, 지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품의 인물 분석과 플롯, 배경, 주제 등 기본적으로 소설이해에 필요한 설명은 교수가 자료제시나 강의를 통하여 안내를 하였다. 즉 작품의 이해와 번역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먼저 각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작품의 배경, 작가의 의도를 설명하고 문화적으로 고려할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화적인 배경지식을 주기 위하여 번역할 작품을 과제로 주기 전에 충분한 역사적, 사회적 설명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란 좁은 의미의 문화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사회적인 행동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핏제럴드의 작품은 20세기 초기의 미국인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전 안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다음으로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각 작품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과 속어적 용법, 고유명사, 지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작품의 구성(plot)과 인물(character), 배경(setting), 견해(point of view)등 기본적으로 소설이해에 안내를 하였다. 그 후 학생들에게 한 단편 전체-처음에는 분량이 가장 적은 「작가의 오후」 (“Afternoon of an Author”)부터 번역해 오도록 두 번째의 과제를 주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수업방법을 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다 자연스러운 번역문과 그렇지 않는 번역문을 비교해 봄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여 차후의 번역 연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번역지도의 실제:

1. 한 클래스를 4-5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처음엔 한 페이지, 또는 일부분을 번역해 오게 한다.
2. 다음 시간에 그룹별로 한 문단씩 자기가 해 온 부분을 읽게 한다.
3. 전혀 다른 뜻의 번역이 나온 부분은 함께 토론하면서 오류를 발견하게 하거나 다른 표현을 제시하게 한다. 이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르게

번역되었는가,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게 한다.

4. 가장 만족할만한 번역문을 택하게 하여 그 번역문을 작성한 사람을 팀장으로 선정하여 다음부터 팀장의 책임아래 한 팀의 번역을 공동으로 하게 한다.
5. 다른 팀의 번역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하여 보다 좋은 번역문이 나오게 한다.
6.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용을 알기 위한 독해와 남에게 보여야하는 번역의 차이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스스로 알게 한다.

번역연습에 대한 안내:

A.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사회에 대한 안내:

미국은 연합군에 가담함으로써 그다지 큰 국력의 손실과 인명의 손실 없이 승전국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1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에서 큰 발언권을 갖게 된다. 윌슨대통령은 전후 평화에 대한 항구적인 국제기구에 대한 구성을 제안하여 나중에 국제연합(UN)의 창설을 보게 된다. 전쟁 중 많은 군수 물자의 교역으로 호황을 맞게 된 미국은 자동차산업, 전기, 화학공업이 주체가 되어 번영을 주도한다. 5명당 1명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미국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전기제품 등 소비재 제품의 발전과 광고에 힘입어 소비가 미덕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풍요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핏제럴드의 작품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켰다. 이러한 번영기의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읽어갈 것을 권유하였다.

B. 지명, 인명, 고유명사 등에 대한 안내:

* Lafayette: Marie Joseph Paul Yves Roch Gilbert du Motier, Marquis de-후작(1757-1834)프랑스의 군인, 정치가. 자유주의 지도자. 미국독립 전쟁에서는 혁명군에 참가해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및 1830년 7월 혁명에서 지도자 역할을 수행했다.

Yorktown에서 Cornwallis를 패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인디애나 서부 Wabash 강에 면한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루이

지아나 주에 있는 도시이름이기도 하다.

- * General Lee: (Robert Edward) 1807-1870 남부 연합군의 총사령관
- * General Grant: (Ulysses Simpson)북부 연방군의 총사령관
- * Stonewall Jackson: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남부군의 장군
Thomas Jonathan Jackson(1824-63)의 異名이기도 하다.
- * Charles Cornwallis (1738-1805): 1st Marquis(후작) Charles Cornwallis. 미국 독립전쟁 중 많은 승리를 거두었으나 Yorktown (1781)에서 패했다.
- * Shiloh: Tennessee 주 동남부의 국립공원. 남북전쟁의 전쟁터.
- * Argonne: 프랑스 아르곤 숲 동북부 삼림지대 제 1차 제 2차 세계대전 때의 격전지.
- * Gettysburg: 게티스버그. Pennsylvania 주 남부의 소도시. 남군이 패배한 격전지(1863년 7월 1-3일). 국립묘지, 국립군사공원 등이 있다.
Gettysburg Address: the를 붙여 쓴다.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전사자를 위한 국립묘지 개소식에서 행한 짧은 연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 라는 그의 연설은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설문이다.
- * Yorktown: 독립전쟁에서 장군이며 후작(Marquis)인 Lafayette가 패배한 곳.
- * The Spanish-American War: 1898년 아바나항구에 정박 중인 미국군함 메인(Main)호에서 원인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266명이 죽는 사고가 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미국은 스페인과 전쟁을 하지만 짧은 전쟁에서 미국은 많은 수확을 올린다. 즉 미국은
 1. 스페인으로 하여금 쿠바 독립을 승인하게 하고,
 2. Puerto Rico와 Guam를 양도받았으며,
 3. 필리핀을 2천만 달러라는 헐값에 매수하게 된 것이다.강화 조약으로 미국이 큰 수확을 거둔 이 전쟁을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 John Hay는 ‘Splendid Little War’ 라고 말했다.
- * First Empire: 나폴레옹 보타파르트 치하의 프랑스 제 1 제정(1804-14)
- * Croesus: Lydia 의 마지막 왕, 큰 부자로 유명하다. rich as Croesus(크리서스만큼 거부인), Croesus’ wealth(거부, 큰 부자)

- * Butte: Montana 주 서남부의 광산도시
- * Gargantua: 프랑스 르네상스 期의 작가 Rabelais(1534) 의 풍자 소설 *Gargantua and Pantagruel* 속에 나오는 고래 술과 말고기를 먹는 것으로 유명한 사랑스러운 거인왕 「가르강튀아 이야기」 여기서 유래되어 겹고 몸집이 큰 사람을 부르는 은어적 표현.
노예제도가 존재할 때 일부 흑인 노예들의 몸집이 유난히 크고 피부색이 검어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비하적인 표현이다.
- * Little America 남극 대륙의 기지 1929년 미국 해군 소장 Richard E .Byrd 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후 남극탐험 기지로 1959년까지 사용되었다.
- * Butte: Montana 주 서남부에 있는 도시, 광산도시
- * Vendome: (1654-1712) 프랑스의 원수 Louis Joseph de Vendome. 그의 이름을 따서 파리에 방돔광장이 있다
- * Prometheus Enriched: 보강된 프로메테우스. 여기선 Braddock을 풍자한 표현이다.
Prometheus Bound: Aeschylis의 비극 (465 B.C)
프로메테우스는 Titan족의 한 사람이며 Deucalion의 아버지로서 Atlas, Epimetheus와는 형제 사이이다.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쳤으며 또 상자 속에 인간의 모든 재난을 넣어 봉해 놓았었는데 그 상자를 Zeus 는 Pandora(판도라)의 지참물로서 Epimetheus 의 손에 넘어가도록 꾀했다. Zeus의 명을 어기고 Olympus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준죄로 바위에 묶여 매일 큰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Hercules 에게 구조되었다.
이 작품에 감명받은 Shelley 는 *Prometheus Unbound*(1820)를 써서 헤라클레스에게 구조되어 풀려난 놓여난 프로메테우스를 내용으로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시이다.
이 두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Prometheus Bound* 는 보강된 프로메테우스, 즉 강력해진 브래독(Braqdock)을 풍자한 표현이다. 다이아몬드로 부자가 되어 모든 것을 가진 막강한 브래독의 모습을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에 비함으로써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야유어린 표현이다.
- * jazzy: 재즈를 연상시키는 대단히 활발한, 활기찬 ,화려한 ,다채로운.

- * jodhpur: 승마바지
- * solvent: 모든 것을 녹이는 사람이라는 뜻
- * points(It had it's points): merits, benefits, 장점, 잇점
- * wooly blondes: 얇은 금발머리, 원래는 양털같은 색을 말한다.
- * plantation: 노예제가 존재하던 남부의 넓은 목화농장을 말한다. 농장의 규모는 마치 한 마을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넓어서 보통 그 속에 주인 저택(Master's mansion)이 있고 목화 농장 사이사이에 노예들의 오두막(cottage 또는 hut이라고 불렀다)이 있어 노예들은 주거와 일터를 함께 하고 있다. 노예감독들은 보통 주인의 저택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지만 규모가 큰 대농장일 경우 노예들을 관리할 수 있게 노예들의 오두막 근처에 있는 경우가 많다.
- * truck garden: vegetable garden truck farm 이라고도 한다. 야채를 키워서 파는 것을 말한다.
- * S. A.: sex appeal
- * outmoded survival: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뜻.
- * catch-penny capitalist, financial small-fry, petty merchants and money lenders: catch penny 는 하찮다는 뜻. 동전 한 푼이라도 생기는 일이라면 쫓아가는 장사꾼, 경제력으로 보면 작은 감자 프라이 밖에 얹되는 규모의 영세사업가, 구멍가게 주인, 그리고 기껏 이자나 받아먹는 고리대금업자. 즉 존경할 만한 기업가가 아니고 하찮은 장사꾼, 각종의 하찮다는 표현을 모아놓은 표현이다.
- * head-dress: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이 늘 머리에 쓰고 다니는 일종의 스카프로 인도 사람들이 즐겨 쓰는 터번 같은 모양에서부터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이 즐기는 무늬있는 보자기 같은 모양에 이르기까지 모양이 다양하다. 크기가 커서 스카프보다는 정식의상과 같다는 의미로 드레스라고 표현했다.
- * black Irish: 철저한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뜻, 이 말에는 경멸적인 뜻이 들어있다.
- * engine: 기관차.
- * acciaccare: 아차카투라. 로코코 시대의 음악 형태. 음 바로 밑의 장식음.

주요 음의 바로 앞에 있는 짧은 장식음. 주요음의 반음 밑에 있어 주요음과 동시에 치는 짧은 장식음.

* vaudeville: 희극 쇼

* better: 개선하다 better oneself: 승진하다

* A.O.W.L: absent without leave, 미군 속어로 군무의 무단이탈, 결근, 무단 외출.

* sickening lightening: harsh, very unpleasant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실 정도라는 뜻이다.

* solvent: 화학약품, 모든 것을 녹이는 기능을 강조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뜻. 본문에서 “요즈음은 솔벤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해“ 라고 충고하는 말이다.

* I'll be dog: 그럴 리가! 정말 결혼식이 있다면 내가 개가 되어도 좋다는 뜻.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무일푼으로 혼자 남겨진 베스가 자존심을 세우려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가게 주인이 자신있게 하는 말이다.

* reel comedy: film is wound on a reel 필름이 릴에 감겨있는데 그 영화필름이 코메디라는 말이다.

* commissary: 군부대, 광산, 벌목장의 매점. 영화 촬영소, 대학의 식당, 간이식당

* guts: 용기, 가치있는 사람.

* bean: (Who beamed him?) 때리다. fellow(녀석), 하찮은 것 등의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어적 표현으로 ‘머리를 때리다’의 뜻. 속어적 표현으로 벌(punish) 라는 뜻도 있다.

get beans: 꾸중 듣다, 얻어맞다.

* haberdasher: 방물장수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남자용 장신구(넥타이, 지갑 등) 상점을 말한다.

* (You'd be wasted) in bits: 소모품이 될 수도 있다.

* (I didn't) make any passes at her: flirt with her, 그녀에게 추근대지 않았다.

* buttonhole: 붙잡고 길게 이야기하다. 성가시다라는 뜻.

* wage: 투쟁하다

* get quite doggy: worn down, 낡았다

- * played out: 이제는 역할을 다 한, 소용이 없어졌다는 뜻.
- * for love: 평생
- * put across: 납득시키다, 이해하게 하다, 받아들이게 하다.
- * on his way up: 발전하다, 상승하다.
- * commandeer: 징집하다, 징발하다, 접수하다, 강제로 빼앗다, 탈취하다.
- * blatant: 시끄러운, 뻔뻔스러운, 뻔한, 야한, 여기서는 황폐해졌다는 뜻.

IV.

학부제 실시 하의 영어영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번역연습을 시도한 취지는 다양한 직업에 대한 대비라는 취지였지만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학부제 실시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부전공 선택과 더불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하게 하여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게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주려는데 있다. 지금까지는 번역사나 통역사, 또는 번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생각하고 막연한 동경을 보내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번역연습 강좌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는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학생들이 직접 번역을 해 보았다는 경험에서 오는 만족감과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지속적인 시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작품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일이 숙어적인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등을 안내해 주다 보니 강의의 초점이 흐려지게 된 폐단을 초래했다. 그렇지만 충분한 시대적, 역사적 설명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품을 대할 때 친근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 번역이라는 과제 앞에서 그다지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으로는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하려다보니 학생들은 여기에 타성이 붙어 스스로 의미파악을 하고 그것을 알맞는 우리말로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제공된 해설 이외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의례 지도교수가 알려 줄 것으로 기대하여 기본적인 사전찾기도 하지 않으려 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예상대로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이었다. 하임즈(Hymes,

1964)의 설명에 의하면 문화는 인간의 앞선 지적인 발달이 예술에 반영된 의미라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되지 않고 모든 사회적으로 조건이 되어있는 인간생활의 양상을 의미하는 넓은 인류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39). 이렇게 넓은 의미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조차도 확립되지 않은 터에 번역연습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준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연습을 한다고 하니 처음엔 영어독해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왜 미국사회의 배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교수의 입장에서는 1차대전의 참전과정, 독일과의 잠수함 마찰 등 역사적인 배경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생들은 제한된 강의시간에 그런 배경지식을 너무 자세하게 한다고 생각하여 의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상호간의 이해의 부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시도한 것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차후의 시도에서는 그런 소설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지식에 대한 안내를 그 때 그 때 작품이 나올 때마다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효중. 『번역학』. 서울:민음사, 2000.
- 김옥동. 『미국소설의 이해』. 서울: 소나무, 2002
- 이보형. 『미국사 개설』. 서울: 일조각, 1997.
- 안임수. 『윌제럴드 소설 연구』. 서울: 명지대학교, 1989.
- Brucoli, Matthew J. *Short Stories of F.Scott Fitzgeral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89.
- _____. *Classes on F.Scott Fitzgerald*. Columbia: Thomas Cooper Library.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2001
- Hornby, Mary Shell.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88.

Leech, Geoffrey N. & Short, Michael H. *Style in Fiction*. London and New York: Lingman, 1981.

Nicholas, Peter. *Modernism*. Houndmills, Basingstroke, Hampshire & London: Macmillan, 1995.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s*. Manchester, UK: Bookcraft Limited, 1999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Publishers, 2000.

K C I

[Abstract]

Guided Translation Exercise to English Majors Under Undeclared Major System

Ahn, Imsoo
(Kwandong University)

The 21st century began with a rapid development in so-called IT industry. Colleges can not be free from the strong winds blowing outside. To meet the changed need of society, colleges are exerting their utmost efforts to survive in the so called education market. Colleges can no longer stay unharmed in an 'ivory tower'. Traditional measures of education are being neglected, thereby duely discarded.

To cope with a fast changing society, colleges are adopting new approaches in actual classrooms as well as becoming equipped with more convenient facilities to attract students. One example of the changes occurring on campus must be the 'non-declared major-system'. This has been adopted in most colleges for the sake of the students-to offer them more choices in selecting their courses.

Society needs multi-talented young people. In the past, one form of specialization was enough to support a person throughout his lifetime. To prepare students to survive in an uncertain time, it can no longer be safe to train them in only a limited field.

From this perspective, this guided translation approach was tried with English majors at the undergraduate level. This was an experimental approach to train students to be familiar with translation so that they would be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fter graduation. It is true that translation requires a

long time of training and patience. But interpreters and translators enjoy reputation and financial reward. For this reason this field is attractive and challenging to especially committed and aspiring young people.

As a first step to this translation approach, background knowledge and idiomatic expressions were provided by the instructor. Then, the students were asked to do their translation as assignments and compare their assignments with the translation of others and accept a better translation.

This approach, however, was concluded to be a failure. Too much of the background knowledge in advance spoiled the students and robbed them of their curiosity and desire to understand the stories and express them in our language. Students became too dependent upon their instructor. And yet, this can not be called a total failure. Based upon this short-coming, a more efficient and productive approach will be expected.

K C I